



벼랑 끝 단두대 매치…KIA, 반등의 한방 노린다

삼성·롯데·두산과 홈 4연전·LG와 원정경기

승률 0.475 리그 8위…5위 kt와 3.5게임차

가을야구 탈락 위기에 놓인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단두대 매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KIA는 지난주 주중 한화이글스·SSG랜더스에게 각각 1패를 당한 뒤 주말 NC다이노스에게 1승 1패를 기록했다. 그 결과 58승 4무 64패로 승패 마진은 -6이 됐고, 승률 0.475로 순위는 8위에 머물렀다.

프로야구 2025 정규시즌 종료까지 구단별 14~18경기만을 남겨 둔 현재 순위싸움은 치열하다. 매일 경기 결과에 따라 가을야구 진출 확률이 요동치는 만큼, 각 구단이 총력전에 나서려는 중이다.

1위 LG트윈스는 2위 한화와 5.0게임차, 한화는 3위 SSG에 7.0게임차로 앞서 있어 선두권 순위는 결정된 모양새다. LG의 정규시즌 우승 매직넘버는 12로, 남은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한화가 패할 때마다 1씩 줄어든다. 한화 또한 큰 이변이 없다면 플레이오프 직행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3위부터다. 3위 SSG부터 9위 두산베어스까지 모두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KIA의 경우 5위 kt와 3.5게임차다. 남은 18경기에서 10승 이상은 기록해야 포스트 시즌 합류를 노

려볼 수 있다.

이번 주 KIA는 9~10일 삼성, 11일 롯데, 12일 두산을 홈에서 상대한 뒤 13~14일 서울에서 LG와 경기를 치른다.

특히 삼성(4위)과 롯데(6위)는 직접 5강 경쟁을 하는 팀인 데다, 두산은 KIA를 1.5게임차로 쫓아오고 있다.

이번 홈 4연전 결과에 따라 순위 판도가 요동칠 예정이다. KIA가 최악의 성적을 작성한다면 가을야구 진출 무산은 물론 순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위기다.

단두대 매치를 앞둔 현재 KIA 타선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지난달 경기 기간 팀타율 6위(0.293)를 기록했고, 실책은 5개로 가장 많았다. 최근 4경기 중 3경

기에서 3득점 이하를 기록할 만큼 득점력도 떨어졌다.

그럼에도 윤도현이 지난주 4경기에서 18타수 7안타 1홈런 2타점 타율 0.389로 뜨거운 방방이를 뽐냈다. 수비와 상황 판단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타격만큼은 살아있는 모습이다.

박찬호도 4경기 16타수 6안타 1홈런 2득점 2타점 타율 0.375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지난 7일 NC전에서는 팀의 영봉패를 막는 솔로포까지 뽐내내는 활약을 펼쳤다.

이외에 김석환(4경기 8타수 3안타 1타점 타율 0.375), 나성범(4경기 11타수4안타 타율 0.364) 등이 타선에 힘이 되고 있다.

마운드는 지난주 평균자책점 9위(7.41)에 머물

렀다.

고무적인 건 최근 컨디션 난조를 보였던 아담을 러는 지난 6일 NC전에 선발투수로 나서 7이닝 4피안타 8탈삼진 2실점 평균자책점 2.57로 호투를 펼쳤다.

이외에 양현종(6이닝 2실점 평균자책점 3.00), 제임스 네일(5이닝 2실점 평균자책점 3.60) 역시 제 몫을 했다.

다만 일부 선수를 제외한 불펜진의 불안은 여전히 하다.

결국 투·타 모두 상승세를 이루지 못한다면 KIA의 가을야구 진출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에 몰린 KIA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며 5강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양궁 컴파운드 최용희, 광주 세계선수권 ‘동메달’

3위 결정전서 미국 선수에 146-145 신승…한국 대표팀 첫 메달

한국 양궁 컴파운드 남자 대표팀 최용희(현대제철)가 ‘광주 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인전 3위를 기록, 한국에 대회 첫 메달을 안겼다.

최용희는 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린 대회 남자 컴파운드 개인전 3위 결정전서 커티스 브로드나스(미국)를 146-145로 꺾고 동메달을 차지했다.

그는 2엔드까지 1점차로 밀리다 3엔드에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이어 4엔드 다시 1점차로 상대에게 리드를 내줬으나 마지막 5엔드 화살을 모두 10점에 꽂아넣으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최용희는 이번 대회 한국 양궁 대표팀의 첫 메달을 따냈다.

한국 컴파운드 대표팀 중 남자 통틀어 유일하

게 메달을 노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간 최용희이었기에 이번 동메달은 더욱 값졌다. 특히 한국 양궁이 세계선수권대회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에서 메달을 수확한 건 6년 만이다.

이전까지는 2019년 스텔르토헤보스 대회에서 김종호(현대제철)가 따낸 동메달이 한국의 유일한 세계선수권대회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메달이었다.

최용희는 앞서 열린 준결승에서는 니콜라 지라르(프랑스)와 접전 끝에 149-149(9-10)로 패했다. 이들은 정규 엔드 15발 중 14발을 10점에 꽂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불꽃 튀는 명승부를 펼쳤고, 승패는 쏫오프에서야 갈렸다.

지라르는 결승에서 마티아스 폴러턴(덴마크)을 150-149로 몰라치고 우승했다.

최용희는 8강전에서는 야기즈 세즈진(튀르키예)에게 148-147로 이겼다.



최용희의 동메달을 끝으로 한국 컴파운드 대표팀은 세계선수권대회 경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유현조, KLPGA 투어 K랭킹 1위 “생애 첫 영광”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B금융 스타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에서 2년 연속 우승한 유현조가 KLPGA K랭킹 1위에 올랐다.

KLPGA는 8일 “유현조는 10,5219포인트를 기록해 기존 1위 이예원(8,4921포인트)을 제치고 지난주 2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며 “유현조가 K랭킹 1위에 오른 건 생애 처음”이라고 전했다.

2위는 9,2282포인트를 기록한 노승희가 올랐고, 이예원은 약 5개월 만에 3위로 내려왔다.

4위는 홍정민(8,1707포인트), 5위는 박지영(7,3956포인트)이다.

K랭킹은 104주(2년) 간의 성적을 반영하고 최근 13주 성적에 큰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매긴다. 유현조는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최근 20개 대회에서 준우승 3회를 포함해 13차례나 톱10에 오르며 꾸준한 성적을 거뒀다.

유현조는 “생애 처음으로 K랭킹 1위에 올라 영광”이라며 “한 단계씩 성장한 과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현조는 대상 포인트 1위(482점), 상금 순위 3위(9억8333만원)를 달린다. 연합뉴스



‘제48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겨루기 입상에 성공한 배재홍(왼쪽)과 배범진.



품세 입상에 성공한 세한대 태권도학과 (왼쪽부터) 한민, 김한형, 지준휘.

세한대 태권도학과, 전국대회서 다수 메달 수확

은3·동2개 획득…겨루기 배재홍·배범진·품세 지준휘 2위

세한대학교 태권도학과가 ‘제48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수확했다.

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전북·고창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세한대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은메달 주인공은 겨루기의 배재홍(4년·-63kg급 1조)·배범진(1년·-74kg급 2조)과 품세의 지준휘(4년)다. 동메달은 품세의 김한형·한민(이상 3년)이 따냈다.

먼저 겨루기에서는 배재홍(4년·-63kg급 1조)이 은메달을 따냈다. 그는 32강 박유찬(경일대), 16강 김우현(동아대), 8강 이장희(경희대), 준결승 김준성(한국체대) 등을 차례로 제압하며 결승에 올랐다. 그러나 결승에서 양원석(용인대)에 6-18로 석패하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배범진(1년·-74kg급 2조) 역시 겨루기에서 16

강 유희서(한국체대), 8강 이상진(광주대), 준결승 김민상(영산대)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안착했다. 하지만 결승에서 이은석(신한대)에 3-8로 패하며 은메달을 땀에 걸었다.

품세 부문에서는 지준휘(4년)가 2조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추가하며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또 같은 부문에서 출전한 김한형(3년)·한민(3년)·이 3조 개인전에서 나란히 동메달을 획득하며 세한대 선수단의 메달 사냥에 힘을 보탰다.

최종집 세한대 태권도학과장은 “학생들이 우수한 성과를 내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며 “다가오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올리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준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국대회에서 값진 메달을 획득한 세한대학교 태권도학과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이 꾸준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